

## 미국이 체감 온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사상 최악의 한파가 몰아친 미국의 체감 온도가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체감 온도에 보다 중점을 두는데, '윈드 칠(wind chill)'이라는 독특한 기준으로 한겨울 추위를 가늠한다.

5일 '스푸트니크' (sputnik.kr)에 따르면 미국 기상청은 전날 공식 채널을 통해 하루 전(3일) 워싱턴 산의 윈드 칠이 관측 사상 가장 낮은 영하 78°C(172.4°F)까지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날 북동부 뉴햄프셔 주의 해발 1,917m 워싱턴 산의 실제 기온은 영하 43°C(109.4°F)였는데, 최대 풍속이 초당 49m를 넘으면서 윈드 칠이 영하 78°C에 달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기록된 가장 낮은 윈드 칠은 영하 75°C(167°F)였다.

추운 겨울, 사람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풍속이 1m 증가할 때마다 1°C(33.8°F) 내려간다. 한국은 이런 공식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체감 온도를 산출하는데, 미국은 윈드 칠이라는 보다 복잡한 공식을 적용한다.

윈드 칠의 개념을 만든 것은 미국의 남극 탐험가 폴 사이플과 찰스 파셀이다. 이들은 1940년대 플라스틱 대야에 물을 담고 얼음이 얼 때까지 시간을 측정했다. 이 과정에서 바람이 강할수록 물이 빨리 어는 사실을 알아냈



▲ 눈 내리는 뉴욕 타임스 스퀘어를 걸고 있는 사람들. 사진=shutterstock



▲ 미국 기상청 관측 사상 가장 낮은 윈드 칠인 영하 78°C를 기록한 해발 1,917m 워싱턴 산 정상 팻말. 사진=facebook(MWOb)

다. 둘은 이를 사람에게 적용. 바람이 강할수록 몸의 열이 빨리 빼앗겨 춥게 느껴지는 윈드 칠 개념을 확립했다. 기상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윈드 칠이 영하 45°C(113°F) 일 때 야외에서는 단 5분 만에 동상을 걸린다고 경고 한다.

미국이 윈드 칠을 중요시하는 것은 체감 온도에 따른 동상을 막고, 나이가 드는 사람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윈드 칠이 영하 30°C(86°F), 영하 35°C(95°F), 영하 45°C(113°F)에 달하면 각각 30분, 10분, 5분 만에 동상을 걸릴 수 있다.

참고로 역대 가장 낮은 윈드 칠을 기록한 워싱턴 산은 한파가 몰아치기로 악명 높은 곳이다. 이곳에 세워진 천문대(Mount Washington Observatory)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파 정보를 시시각각 제공하는데, 혹한기에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비스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파 체험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워싱턴 산 천문대는 워낙 추운 곳에 있다 보니 'Home of the World's Worst Weather Live', 즉 '날씨가 지구촌에서 가장 안 좋은 곳'이라는 재미있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스페셜**

## 한방침 + 물리치료

Acupuncture + Massage

10번 패키지 구입시 1번 Free

**2022 Top AWARD** **재활 통증 전문**

2022 Top Doctors of Excellence Acupuncturist에 선정된 여성 한의사가 세심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침
부황
뜸
보약

**공진단 선물용 상품권도 판매합니다.**

\*쌍화탕  
 \*녹용대보탕  
 \*십전대보탕  
 \*각종 한방 TEA

각종 보험, 통증, 한약  
 교통사고, 건강상담 환영, 메디케어  
 메디케어 (Advantage)

**푸른송한의원**

PINETREE ACUPUNCTURE

월 - 금 9:00 AM ~ 6:00 PM 토 10 AM ~ 1 PM 일 Closed

**714.736.0208**

2619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 따뜻한 마음과 손으로 모시는 남가주 한인 장의사 이효섭

이효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인사드립니다.

장의사로서 장례 일정을 상담하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시신방부사로서 가신 님의 몸을 직접 방부처리합니다.

이 과정은 기술과 정성입니다.

남가주에서 한인으로는 유일합니다. (\*현재 저의 파악)

장례는 종교적 문화적 예식입니다.

묘지(Grave)는 묘지공원(Cemetery)에서 구입하셔도

장례예식(Funeral Service)은 언어와 문화가

동일한 동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중에 의사가 있으면 마음 든든하지요.

네 맞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으면

어려울 때 큰 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지인 중에 장의사가 있으면 힘든 시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소에 믿을만한 장의사를 꼭 알아두세요.

**이효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FDR4701, EMB9702)



- 매장, 화장, 장례보험
- 폴러턴 소재 스캇 맥콜리 패밀리 장의사(FD 1593)와 함께 일합니다.
- 개인 상담, 단체모임(교회)에서 무료 세미나 해드립니다.
- 경력: 10년 이상의 장의사, 시신방부사. 로즈힐 묘지 근무.



**714.951.2520**  
**714.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